

## 수산물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600톤 공급 개시

- 대형마트 3사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4월 14일까지 연장
- 고등어, 명태, 갈치, 멸치도 주요 마트에서 시중가 대비 30%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물량 최대 600톤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중성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징어, 참조기의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특별전은 3월 22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원양 오징어 공급이 시작되는 4월까지 오징어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 비축 방출물량을 260톤(오징어 200톤, 참조기 60톤) 추가하고 판매 기간도 4월 14일까지로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수요 분산을 위해 나머지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명태, 갈치, 멸치도 정부 비축물량 340톤을 주요 마트에 공급하여 3월 14일(목)부터 소비자에게 시중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편, 3월 수산물 할인행사(3. 7.~24.) 지원 품목도 확대(2월 6개→3월 최대 9개)하여 대중성어종 외에도 명게, 우럭 등 봄 제철 수산물까지 폭넓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이 4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3월이 올 한 해 수산물 물가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3월 한 달간 정부 비축물량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하고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추진하여 수산물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정재훈 (044-200-5447)